

문화전당특별법 통과 지역 국회의원 힘 모아야

■ 오늘부터 임시국회 ... 지역 관심 법안 어떻게

비선실세 논란에 파행 가능성... 전략적 접근 필요

5·18특별법·유공자 예우법 개정안도 처리 절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이틀간(15~16일)의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한 달 간의 일정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런 임시국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들도 다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광주·전남지역 관심 법안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중학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의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새정치연합 박해자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관련 상임위원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5·18특별법 개정안은 5·18 기념식에

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해 말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나 아직까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5·18특별법 개정안과 5·18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이 두 법안 역시 지난해 말 법사위 법안소위와 정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화운동 등을 부인·왜곡·날조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인륜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홀로코스트법)'은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원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돼 현재까지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 법안들 중 대다수는 지난해 말에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그 이후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 국회의

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지역 출신의 우윤근 의원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지역 관심 법안을 통과시켜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사자방 국조와 청와대의 '정운회 동향보고' 내부문건 보도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가 파행 운영될 가능성도 있어 지역정치권의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제외하곤 모두 지난해 말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의원들과 당 지도부의 무관심으로 1년 동안 전혀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관심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돼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익위, 완도 서부권 5개섬 대중교통 해결

‘100원 택시’ 운영 제안

전남도, 적극 반영키로

완도 서부권 백일·흑일·동화·황간·노화도 등 5개 섬 주민들이 육지를 오갈 때 이용하는 해남군 남성항에 대중교통이 없어 겪었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이들 섬 주민들은 해남군이 버스 시간 조정이나 연장에 난색을 표하면서 2년 넘도록 민원을 제기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전남도의 '100원 택시' 적용과 대중교통편이 있는 항구의 부정이 노선 추가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섬사랑1호'는 이들 5개 섬에서 완도군 원동항으로 결항했으나 원동항의 수심이 낮아 겨울 향몰이 높아지자 2012년 6월에 지금의 남성항으로 선착장을 옮겼다. 남성항은 행정구역상 해남군에 속하는 소규모 어항으로, 지난 2005년 해남군수가 지청해 관리하고 있다.

섬사랑1호는 하루 2차례 해남군 남

성항을 오가고 있으나, 문제는 남성항에 대중교통편이 없었다. 이로 인해 섬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해남군에 불편을 호소했으나 해남군측이 난색을 표해 지난 9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12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완도군은 2015년부터 섬 사랑1호 이용 섬 주민을 위해 '100원 택시' 운영 공모제안서를 전남도에 제출하고 전남도는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섬사랑1호의 운항거리 단축에 따른 운임제도를 재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해남군 갈두항(땅끝항)에 부정기적으로 섬사랑1호를 운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정회의에 참석한 이날 연 전남지사는 100원 택시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성보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내-수입쌀 혼합 유통

내년 6월부터 판매 금지

내년 6월부터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각각 금지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쌀 관세화 등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쌀 수입 개방 관련 대책으로 이 같은 양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 등)에 대해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를 신설했고,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도 포함됐다. 현재는 혼합 시 원료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다문화가족 송년 어울림 한마당

아시아 소리모아 합창단, 빛고를 레인보우 어린이합창단, 레인보우 아가펠라팀 공연과 함께 베트남·필리핀·중국·몽골 이주여성들이 각국의 민속무용 등을 선보였다.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신애)는 지난 12일 오후 센터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다문화 가족이 모인 가운데 '송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 소리모아 합창단, 빛고를 레인보우 어린이합창단, 레인보우 아가펠라팀 공연과 함께 베트남·필리핀·중국·몽골 이주여성들이 각국의 민속무용 등을 선보였다.

전남 ‘새꿈도시’ 입주자 절반이 수도권 출신

〈은퇴도시〉

“편안한 노후생활 위해” 41%

전남에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외지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며, 이들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전남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새꿈도시(옛 은퇴도시) 입주자의 이주 동기, 수요 등을 조사해 새꿈도시 개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과 '곡성 강

빛마을' 입주자와 분양 계약자 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입주 전 거주지는 수도권(54%), 광주(19%), 전남(17%) 순이었다.

새꿈도시 이주 목적은 '편안한 노후생활'(41%)과 '새로운 삶'(23%), '가족건강'(17%) 등이 대부분으로, 은퇴 후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 결정 시 망설였던 이유는 '낮선 환

경'(42%), '지인들과 이별'(21%), '자금 부족'(17%), '가족의 반대'(11%), '기타'(9%) 순이었다. 이주 인원은 '부부'(62%), '가족 전체'(16%), '가족 일부'(13%), '혼자'(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39%는 아는 지인들과 함께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 시 제일 필요한 것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37%), '소득 창출 시설'(34%), '실외 운동시설'(15%)로 나타났다. 입주 후에는 '주변지역

관광 및 여행'(29%), '등산 등 체육활동'(22%), '집안 가꾸기'(22%),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12%), '영농'(10%) 순으로 일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득 창출 여부에서는 73%가 '원한다'고 밝혔으나 근로 희망 시간은 '4시간 이내'(54%), '6시간 이내'(25%)로 비교적 짧았다. 새꿈도시 이주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66%), '보통'(23%), '만족하지 못함'(11%)을 보였으며, 만족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의료·교육 등 각종 편의시설 부족'(73%) 때문이라고 답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군지역 산모 98%가 타지서 출산

산후조리시설 열악 탓

농어촌지역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위해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시로의 원정 출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산후조리원이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도시지역에만 7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 군 지역에는 없기 때문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곳의 시를 제외한 17곳의 군에서 출생한 6262명 가운데 군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2.5%(15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7.5%(6180명)가 지역 밖에서 태어났다.

17개 군 가운데 강진읍 출생아 363명 가운데 139명이 관내에서 태어났다. 강진의료원 내 산부인과가 있고, 산후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난 해남군(808명)에서는 8명, 완도군(389명)과 고흥군(283명)에서는 각각 4

명과 3명만이 태어났으며, 나머지 군에서는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 첫 울음을 터뜨렸다.

5개 시 지역에서는 여수 2424명, 목포 2168명 등 모두 9139명의 아이가 태어나 함께출산율 1.495명을 기록했다. 17개 군의 함께출산율은 시보다 높은 1.654명이었다.

해남군에서 가장 많은 808명, 영암군에서 665명이 각각 태어나 함께출산율 2.349명, 2.150명으로 집계됐다. 22개 시·군 가운데 함께출산율 2명을 넘는 곳은 해남과 영암밖에 없었다.

한편 전남도는 함께출산율 7년 연속 전남 1위인 해남에 도비 5억원(자부담 4억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 산후조리원은 150평 규모의 산모 방 8실, 신생아실, 좌욕실, 모유 수유실, 마사지실, 적외선 치료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입학상담문의

www.gochina.co.kr

자감전화주세요!!

사학적인 반드시 성공합니다.

☎ 233-9582 (중)구오팔리

경품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력대상자경품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즉석복권기념품 포함)

선물1

(계약시 경품 응모권 포함)

1등

2등

3등

황금열쇠순금1냥(1명)

4등

5등

선물2

(기념품(택1))

[기념품(택1)]

[핸드크림]

[치약세트]

선물3

(계약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통장지갑]

[글라스탁 일제용기세트]

[세라믹요령 냄비]

자력기준

~출자금 10만원 이상 입금고액

~정기예금 1000만원 이상 가입고액

~대출1,000만원 이상 상환고액

~생량금계, 자력저축회 가입고액

~천자금융 신규자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자

~체크카드 신규자(1회이상 이용고액)

~금융추천업체지점 방문미지 및 이용 기록자

※상기 자력기준은 특별히 한정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일(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동 5가 입구